

STEP3. 킬러 고난도 선지 해설

KILLER 고난도 선지 해설

; 유교윤리사상의 연원

1. 순자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지지하는 학자이다. 따라서 본래 악하게 태어난 인간은 성인들의 가르침 등을 통한 교화를 거친 후에 선에 부합된다고 본다.
2. 순자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욕망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조절'의 대상이다.
3. 두 명 모두 교육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2번 선지와 같은 내용이다.
5. 공자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지지하는 학자로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옳음과 그름을 가려내는 능력을 지닌다고 본다. 다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능력'을 '양지'로 고쳐 쓰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개념 자체는 공자 대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집대성하고 용어로서 구체화한 것은 맹자이기 때문에, 공자 선지에 '양지'라는 워딩이 나오기가 애매하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이를 근거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알아두도록 하자.)
6. 순자는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한비자는 이기적인 인간을 교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덕이 있다고 군주가 되거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물론 한비자는 주요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7.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권력이 백성과의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사상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근대 이후에 등장한 사상으로 민주주의와는 구분된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된다고 보는 사상으로 치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백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정치사상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주권 자체가 백성 또는 국민에게 있다는 점에서 민본주의와 구분된다.
- 8-9. 역성혁명을 주장한 것은 '맹자'가 유일하다. 공자와 순자는 역성혁명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10. 맹자는 날마다 옳은 일을 하여 의로움을 쌓는 '집의'를 통해 넓고 큰 기개인 호연지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11-12. 맹자와 공자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지지하는 학자로서 인간은 '인'을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다고 본다. 반면 순자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학자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 따위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성인들의 가르침(=예(禮))을 통해 인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13-14. 극기복례에 대한 질문이다. 애매할 수 있는 지점이라 확실하게 짚고 가야한다. 극기복

례의 경우 공자가 말한 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공자가 말한 인(仁)은 내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실하게 사랑을 널리 베푸는다는 의미의 '충서(忠恕)'이기도 하지만 외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의로 돌아간다는 '극기복례'이기도 하다. 순자가 말하는 예란 정치제도나 생활의식 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 질서를 모두 포함한 도덕적 원리'이다. 따라서 순자는 예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성으로 이어지는 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결국 예가 처음에는 외형적인 형식에 불과하지만 지혜로운 스승 즉, 성인을 만나 그 스승에게 예를 배우고 익혀 실천하면 어느새 내면적 덕성으로 변화하여 인(仁)으로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순자의 사상은 공자가 말한 '인(仁)'의 내면적 특성인 충서보다 외면적 측면인 극기복례라는 측면을 더 강조한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공자와 맹자, 순자 모두 극기복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15. 순자는 인간이 타고난 이기심과 욕망을 사회적 규범이자 질서인 예에 따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16. 맹자와 순자 모두 성인과 일반 백성 사이에 타고난 본성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맹자는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순자는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다만 맹자의 경우 이기심을 극복하고 선한 본성을 지키는 자가 성인이 되는 것이라 보고, 순자의 경우 예로서 악한 본성을 다스려 인에 가까워진 자가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17-18.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연스러운 욕구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대상이다.
19. 장자와 순자의 공통점이다. 매우 좋은 선지로 꼭 익혀두어야 한다. 장자와 순자 모두 자연적 본성과 인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 것은 맞다. 다만 장자는 인위를 혼란의 원인으로 순자는 인위를 예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20. 순자는 인간의 본성 즉, 이기심과 욕망이 사회악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질문에 현우가 답하다.

- Q.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A.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란 어떤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무절제'하다는 의미이다. 이기적인 인간들은 예(禮)라는 규범이 없으면 '무절제'해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1. 이런 것은 틀릴 수가 없다. 순자가 보기에 본성은 이기심이다. 따라서 본성을 확충해서 성인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자 또는 맹자이다.

22. 꽤 예전 기층에 등장한 표현이라 재출제 가능성이 있다. 생운에서도 나오는 애기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을 효(孝)라고 본다.
23. 순자는 한정된 재화를 사농공상에 따라 직분에 맞게 차별적으로 분배하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순자의 정치사상의 근본이 되는 내용으로 꼭 알아두도록 하자.
24. 그러하다. 순자 철학의 맹점 중 하나이다.
25. 순자는 맹자의 이상주의적인 성선설에 반대한 현실주의자인 것은 맞다. 다만 근본적으로 두 명 모두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6. 순자가 공자, 맹자와 달리 예(禮)를 성인이 제정한 것이라 본 것은 맞다. 하지만 예(禮)는 내면적 도덕성이 아니라 외면적인 규범이다. 예(禮)를 내면적 도덕성이 외면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공자와 맹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3-14번 해설과 일맥상통할 듯하다. 위 해설을 참고하길.

우문현답

우리들의 질문에 현우가 답하다.

- Q.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A.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자면, 순자는 기본적으로 예(禮)를 이해하는 방식이 공자와 맹자와는 다르다. 공자와 맹자는 예(禮)가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仁)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 보는 반면에, 순자는 외면적인 예(禮)를 통해 내면적인 도덕성을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예(禮)를 외면적인 규범이라고 보는 것은 동일하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식으로 보자면,
 공자, 맹자의 예(禮) : 내 ⇒ 외
 순자의 예(禮) : 외 ⇒ 내

27. 맹자는 백성>국가>군주 순으로 귀하다고 본다. 이러한 민우귀(民爲貴) 사상은 민본주의적 역성혁명의 근거가 된다.
28.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군자'는 직위에 해당하고, 대인, 대장부는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맹자는 그저 '군자'라서 선한 것이 아니며, 호연지기를 습득한 '대인'이 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저 그런 군자보다 수기와 수양을 통해 호연지기를 습득한 대인과 대장부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다.
29. 그러하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미움이 생기는 원인은 재화의 적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균등하지 않은 분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0. 이는 적극적인 서의 자세가 아니라 소극적인 서의 자세에 해당한다. 공자가 말하는 적극적인 서의 자세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제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31. 맹자와 묵자는 기본적으로 반전주의를 주장

STEP3. 킬러 고난도 선지 해설

했다. 다만 두 사상가가 전쟁을 반대한 근거는 서로 다르다. 묵자는 공리적인 이유로 전쟁에 반대한 반면, 맹자는 인본주의, 민본주의에 근거하여 전쟁에 반대한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질문에 현우가 답하다.

Q. 우리가 묵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요? 또 반전주의에 관한 내용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A. 문제의 포인트는 묵자도 아니고 반전주의도 아니다. 결국은 맹자 정치사상의 핵심인 민본주의와 인본주의에 관한 물음인 되는 것이다. 묵자 사상을 알 필요도, 맹자의 반전주의 관련 내용을 빠삭하게 알 필요도 없지만 맹자의 정치사상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와 민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적으로 선지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고이고 고인 윤리와 사상에서 변수를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EBS나 기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도 원전에 있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아무런 근거나 <보기>도 없이 선지만 땀겨 주지는 않을 것이다. <보기>에 근거를 주고 교과에서 배운 기본 내용을 통한 추론 정도로는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한 번쯤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다. (이런 선지들이 진짜 '고난도 예상'인 것이고 활연관통 교재의 컨셉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재에서 이런 선지를 만났을 때 보여야 할 적절한 반응은 '역시 남다른 해안ㄷㄷ'이고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와 시발ㅋㅋㅋㅋㅋㅋ'하고 놀라면 된다.

32.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맹자는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한비자는 주인의 강력한 통제력과 권력 때문에 하인이 복종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한비자를 알 필요는 없다. 맹자의 근거만 해설을 통해 익혀두자.)

33. 공자가 볼 때 인(仁)의 실천 근거는 타고난 선한 본성이며, 예(禮)의 실천 근거는 또 다시 인(仁)이 된다.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의 실천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셈이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질문에 현우가 답하다.

Q. 뭘말이나. 한국말로 해라.

A. 솔직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저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자세히 설명하자면, 공자의 인(仁)이란 인간의 윤리적 본성인 동시에 도덕적 행위의 실천 근거가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인(仁)은 내적인 측면인 충서(忠恕)와 외적인 측면의 극기복례(克己復禮)가 있다. 여기서 충서(忠恕)란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자 행위 원칙이다. 따라서 인(仁)의 내적 측면인 충서(忠恕)의 행위 근거는 또 다시 인(仁)이 되는 그런 관계이다. 또한 인(仁)의 내용 자체가 예(禮)로 돌아가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에 예(禮)의 실천 근거가 인(仁)이 되는 것이다.

34. 맹자가 볼 때 통치의 근간은 인의(仁義)이다. 따라서 인의(仁義)가 법 시행의 보조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의(仁義)의 실현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35. 맹자는 각자 직분에 맞는 역할이 나뉘어 있으며,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36. 맹자가 일반백성이 향산이 보장되어야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사실이지만, 백성의 도덕성이 향산 보장 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백성의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향산이 보장되어야 그 선한 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이다.

37. 맹자가 볼 때 통치자의 목적은 거시적으로 볼 때 인의(仁義)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의(仁義) 실현의 수단이자 방법, 그리고 치자의 최우선 과제가 향산 보장이지 통치자의 목적 자체가 생업 보장은 아니다.

38. 맹자는 일반 백성은 향산이 유지되지 않으면 향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호연지기를 갖춘 대인 또는 대장부의 경우 생업이 보장되지 않아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39. 순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덕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설명을 하는 학자는 맹자이다.

40. 그러하다. 예(禮)가 참된 본성인 인(仁)의 실천 방법론 정도 되므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41. 그러하다. 서로 예(禮)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예(禮)가 개인 인격 함양 및 사회 안정의 필요조건이라고 본 것은 공통적이다.

42. 중요한 선지이다. 순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천인분이 사상은 '하늘'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순자는 농사와 같은 인간의 삶에는 '하늘'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지인(至人)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질문에 현우가 답하다.

Q. 그럼 천인분이 사상에서 하늘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A. 공자부터 맹자에 이르기까지 유교 사상에서는 성선설을 지지하기 위해 하늘을 도덕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왔다.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 본성이자 우주의 운행 질서인 인(仁)인 것이다. 그런데 유교의 이단아 정도쯤으로 볼 수 있는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이상주의를 벗어던지고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까지 도덕적 원천이라 여겨왔던 하늘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생긴 것이다. 순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늘이 어떠한 도덕적 진리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그대로의 하늘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하늘로부터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일부로서 하늘

과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정리하자면 맹자 때까지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 원천인 '도덕천'이었던 반면, 순자는 그저 자연 또는 과학적 관찰 대상인 '자연천'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43. 고자를 알 필요는 없다. 핵심은 맹자이다. 맹자는 식욕과 성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44.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한번쯤 푼 튀어나올 수 있다. 유교 사상은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문이다. 입신양명과 부귀양명을 추구하는 '위인지학(爲人之學)'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크로스워드 등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단어 공부 하듯이 암기해두자.)